

# 춘향제, 바가지 요금 오명 '종지부'

### 남원시 제전위, 비양심적인 외지 상인들에 대한 엄중조치 등

남원시는 제94회 남원 춘향제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외지 상인들에 대한 엄중조치로 '뜨내기 무신고 바가지 요금'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실제로 남원시 제전위는 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부 외지 상인들이 단기간 임대 상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비양심적으로 정당한 무신고 영업했다.

특히 제전위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됐던 점포와 관련 '바가지

요금 주의보' 팝업창을 띄우며 표시된 지역은 공식 부스가 아니라고 공지하며 계도했다.

또한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7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법 제 20조 위반)에 따라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건축법 제 110조를 근거로 5개는 철거, 미축조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하나 축제를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축제 기간 모든 상업 활동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내년도도 '뜨내기 무신고 영업상인'들을 원천 봉쇄시키겠다"고 표명했다.

이번 춘향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착한가격 먹거리를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특히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해 호평받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창군의회, 순창교육지원청 등 7개 기관이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 노인 일자리 3천개 확보 임박

### 순창군, 선도모델 100개 추가 확보... 유관기관 참석 업무협약식 개최

순창군이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3,000개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3,000개 확보는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취임 초기 1,821개였던 노인일자리는 2024년 2,833개로 대폭 늘었다.

이에 더해 최근 순창군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순창형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사업 선도모델 사업으로 100개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아직도 노인일자리가 부족해 애대우고 있는 많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창군의회,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농협은행순창군지부 등 7개 기관이 함께하는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6개 기관장은 예산지원, 지역사회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앞으로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선도모델사업(지원사업)은 순창의 지속적인 탄소저감으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안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양질의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의 일환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으로 사업참여 100명을 선발하고, 이날 협약을 맺은 관내 유관기관에 수거함을 설치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된 페플라 스틱(페트병)을 수거해 세척 및 분리 후 자원순환기를 통해 재생플라스틱 원료인 플레이크(얇은조각)로 가공할 예정이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이미 3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소득보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꼭 필요한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 항공방제·일반방제,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임실군이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농업인의 방제 노동력 절감 및 단기간 내 동시 방제로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5,400만원으로 추진된다.

공동방제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방제 약제 및 영양제 선정, 방제 시기 등 방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품목인 벼, 고추, 복숭아에 동시 등록된 약제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하는 '항공방제'

(사진=임실군 제공)

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방제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하는 '항공방제'와 조생종 재배지와 같이 방제 시기에 차이가 있거나, 개인 방제를 원하는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일반방제'의 2가지로 구분한다. 항공방제와 일반방제 두 가지 동시 신청은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군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미나방 등 벼 생육 후기 주요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회 방제를 추진한다.

2차 항공방제와 일반방제에는 영양제를 지원하여 도복 방지 및 미질 향상 등 후기 생육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공약 이행 평가단 35명 위촉

남원시는 지난 17일 공약 실천 계획 조정 및 평가와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 실천을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 35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단

은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공약이행 현황 평가,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역할하게 된다. 평가단은 남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22명을 포함한 185명을 대상으로 1차 ARS, 2차 전화 면접 등을 통해 35명을 선발했으며, 첫 회의

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약이행 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역량강화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5월 31일과 6월 14일 등 총 3회에 걸친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거쳐 공약실천 계획 조정안 심의결과와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7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친환경 쌀,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남원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이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참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쌀 브랜드인 '자연섬리'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블라인드 시식 평가에서 우수한 고품질 쌀로 호평을 받으며, 최근 성동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2년간 연간 40톤의 쌀을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원구, 금천구를

포함한 총 16개구 90개교 초·중·고교생에게 친환경 쌀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렵고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원시 친환경 쌀 재배 농업인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친환경 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5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총기류의 안전한 사용과 구제 활동 시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7일에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 경험이 많은 관내 수렵인 40명을 선발하여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 지사 관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착수보고회

임실군이 2024년 선정된 지사면 관기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사업 선정 이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기마을에 대한 종합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추진위원장 및 마을주민들과 4년여 간의 긴 여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마을의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5억을 포함, 총 20여억원을 들여 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현장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모두가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